

낙농위기,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



강신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지난해 상반기 우리경제가 청명한 하늘 밑에 있을 때 외환위기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활황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소프트랜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현안과제이다 보니 민간기업연구소와 일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시된 외환위기론은 그야말로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됐다. 무역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등 우리 경제에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더구나 재정수지가 건전하기 때문에 IMF의 도움을 받은 멕시코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외환을 제공해줄 의사가 있다」는 IMF의 의향이 외신을 통해 들어왔다. 그때 우리 정부의 경제부처 관료들은 『우리 경제는 펀드멘탈(기초)이 튼튼해 멕시코와 다르다』며 IMF관리체제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제관료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폭락세를 거듭했고,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를 2주 가량 남긴 시점에서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했다. 6.25동란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관리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국민과의 TV대화」를 통해 『온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난국을 돌파하자』고 호소를 했다. 김당선자는 특히 이 말을 하면서 『모라토리엄(국가부도) 위기는 넘겼지만 빚을 갚으려고 빚을 얻는 것

이 아니라 이자를 갚으려고 빚을 얻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기도 했다.

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수출드라이브에 나섰고, 장롱속의 돌반지까지 국가에 기부하거나 해외시장에 내다파는등 IMF 관리체제 극복에 나섰다. 『멕시코와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던 말이 『멕시코 처럼 빨리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자』는 말로 변한 것이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는 외환보유고가 지난 6월말 현재 4백억달러를 돌파하는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민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다.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여겨왔던 은행원까지 길거리로 내אות으면서 자리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고, 공무원도 직장을 떠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실업자가 1백50만명에 달하는 실정으로, 홈리스라는 생소한 단어까지 접하게 됐으며, 실업자 한사람당 평균 네사람의 가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민 7명중 한사람 꼴로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성장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 이에 더해 소비는 더더욱 위축돼 그 결과가 다시 경기위축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축산업 역시 사상 최대의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말 외환부족 사태속에 미국달러에 대한 원화의 전신환매도율이 2천원을 넘는등 국가부도의 위기상황에서 배합사료를 구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은 축산업계는 지금 축산물의 소비급감으로 산지가축시세와 축산물값이 폭락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여기다 아무리 싼 값에 가축이나 축산물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부도사태에 직면하고, 한 축산농가의 부도가 상호지급보증을 선 이웃으로 이어지면서 그 마을의 주민 전체가 부도를 내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낙농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비급감속에 분유재고가 적정재고의 3배를 넘는 1만6천톤에 달하고 있는 상태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연말에는 2만5천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젖소값이 폭락하고(초유떼기 송아지는 돼지새끼 값 보다도 낮은 3만5천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원유값마저 제때 받지 못하는 낙농가가 속출하는등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낙농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낙농가, 유가공업체의 노력도 처절하다. 정부는 현재의 낙농위기를 소비감축속에 원유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유제품의 소비확대와 원유생산 감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를 위해 먼저 원유값과 유제품값의 인하를 낙농가와 유업체에 종용하고 나섰다.

그 결과 낙농가들은 원유값 인하 대신 낙농자조금 조성을 통한 우유소비홍보와 저능력 젖소의 도태를 선택하고, 20억원의 자조금조성과 저능력 젖소의 도태에 나서고 있다. 또 지난달들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일반유가공업체들이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며 우유값을 5% 안팎에서 인하했고, 축협중앙회와 유가공업체들은 유제품 소비홍보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농위기는 풀리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그러다 보니 생산비는 커녕 빚더미에 올라앉을 상황에 직면해 분노가 치민 낙농가들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잔디밭과 축협중앙회 주차장, 여의도광장 등에 젖소송아지를 내다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낙농위기는 이처럼 악화되면서 축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그리고 그동안 생산감축과 소비촉진에만 매달려온 정부는 초유떼기 젖소송아지를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낙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10만원에 구매해 2~3개월간 사육시킨후 도축하고, 저능력 젖소의 도태지원금으로 마리당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초유떼기 송아지를 10만원씩에 구입해 송아지값을 지지하고, 부분적으로는 낙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나마 보장해 주는 한편 저능력 젖소의 강력한 도태를 통해 생산을 감축시키자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은 현재의 낙농위기를 일순간에 견어낼 수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책이 그동안 낙농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정과정에서 낙농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일단 작금의 낙농위기 극복을 위한 공은 정부에서 낙농·유가공업계 쪽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모두 낙농·유가공업계에 넘겨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낙농·유가공업의 위기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 가운데 자금지원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낙농가들이 저능력 젖소를 도태하고,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해 유제품의 소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긴급종합대책을 통해 투입하는 자금은 8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여기서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저능력 젖소 3만두 도태에 지원되는 30억원과 초유떼기 송아지 2만두 구입시 농가에 돌아갈 실제가격과 구매가격과의 차액인 10억원 등 40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가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저능력 젖소를 도태하고,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한

다는데 정부가 낙농위기 돌파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4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무리 IMF관리체제를 맞아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쉽사리 이해가 구해지지 않는 대목이다.

낙농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낙농가의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부의 노력이 과분할 수도 있다. 낙농가들이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키로 했지만 실제로 자조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모든 낙농가들이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20억원을 목표로한 자조금은 구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조금 조성이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낙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격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리고 정부의 긴급종합대책이 낙농가들의 자구노력을 발판으로 해서 마련돼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낙농자조금 구성에 있어서 낙농가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 지는 것이다.

굳이 고사성어를 들추지 않더라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낙농업의 위기는 낙농가가 주체가 되어 극복할 때 우리 낙농업의 기반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언제 IMF관리체제를 졸업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를 졸업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않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저 막연하게 IMF관리체제만 벗어 나면 잘 되겠지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IMF관리체제는 곧 극복되겠지 하는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이자 전망이기도 하다.

상황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빛을 얻어 흥청망청 춤을 추던 시대는 쉽사리 오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직면한 현재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해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IMF관리체제는 6.25동란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우리 역사에 검은 그림자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자조금 조성을 통해 현재의 낙농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낙농자조금은 낙농사의 밝은 한면을 장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낙농가들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낙농위기를 생산감축등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는등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의 낙농위기는 그동안 낙농가들이 겪었던 위기보다 강도측면에서 좀더 강할 뿐 극복하지 못할 위기도 아니다. ㊦